

# 2020 단국가족 장애 공감 교육

[장애 인식 개선에서 전환으로]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신 현 기

# 단국대학교 장애 대학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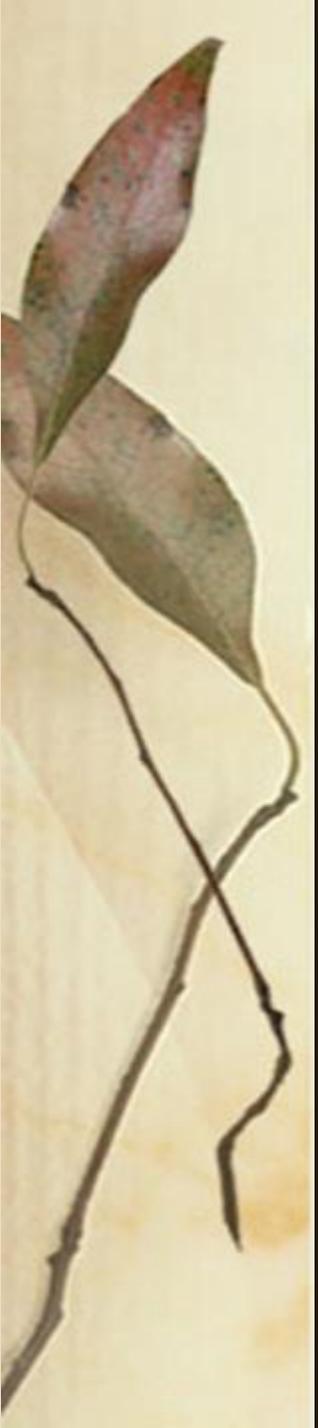
2020학년도 기준

## 재학생 104명

시각장애 17; 청각장애 31; 지적장애 3; 지체장애 32;  
뇌 병변 10; 자폐성장애 3; 신장 장애 3; 언어장애 1;  
심장장애 1; 간 장애 2; 기타 1

## 휴학생 26명

시각장애 1; 청각장애 7; 지적장애 2; 지체장애 6;  
뇌 병변 7; 자폐성장애 1; 건강 장애 1; 신장 장애 1



## 단국대 동양화전공 오순이 교수

- 1969년 3살 무렵 마산 인근 철로  
변에서 사고
- 초등4년 생활상 TV보도(독지가와의  
인연, 현재 )



## 내 마음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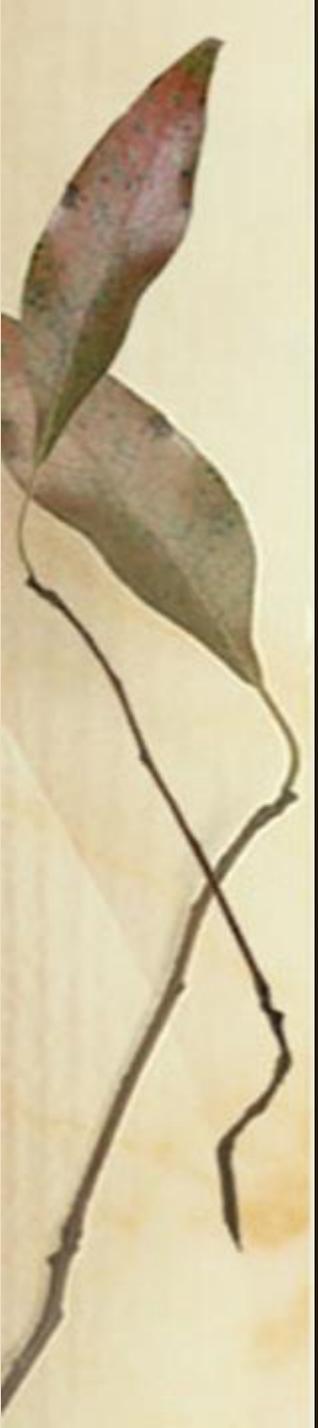


## 수묵 크로키 화가 석창우 화백



- 1984.10. 29 감전사고(22,900V)
- 4살배기 큰 아이 “아빠! 참새 그려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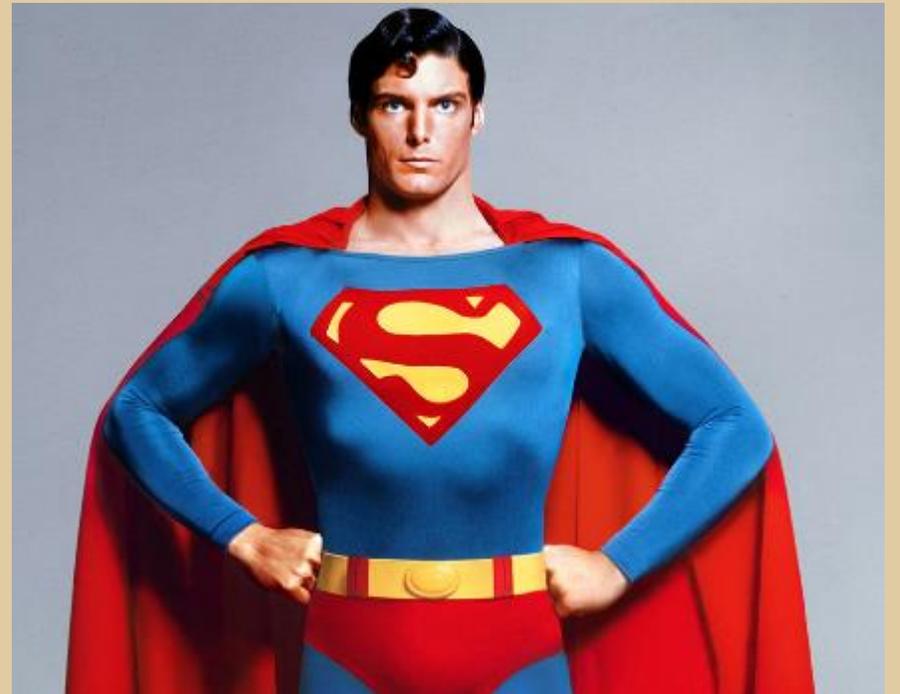




\* 1995. 5. 27(43세) 승마 사고

〈슈퍼맨〉

크리스토퍼 리브  
&  
다이아나 리브



#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이상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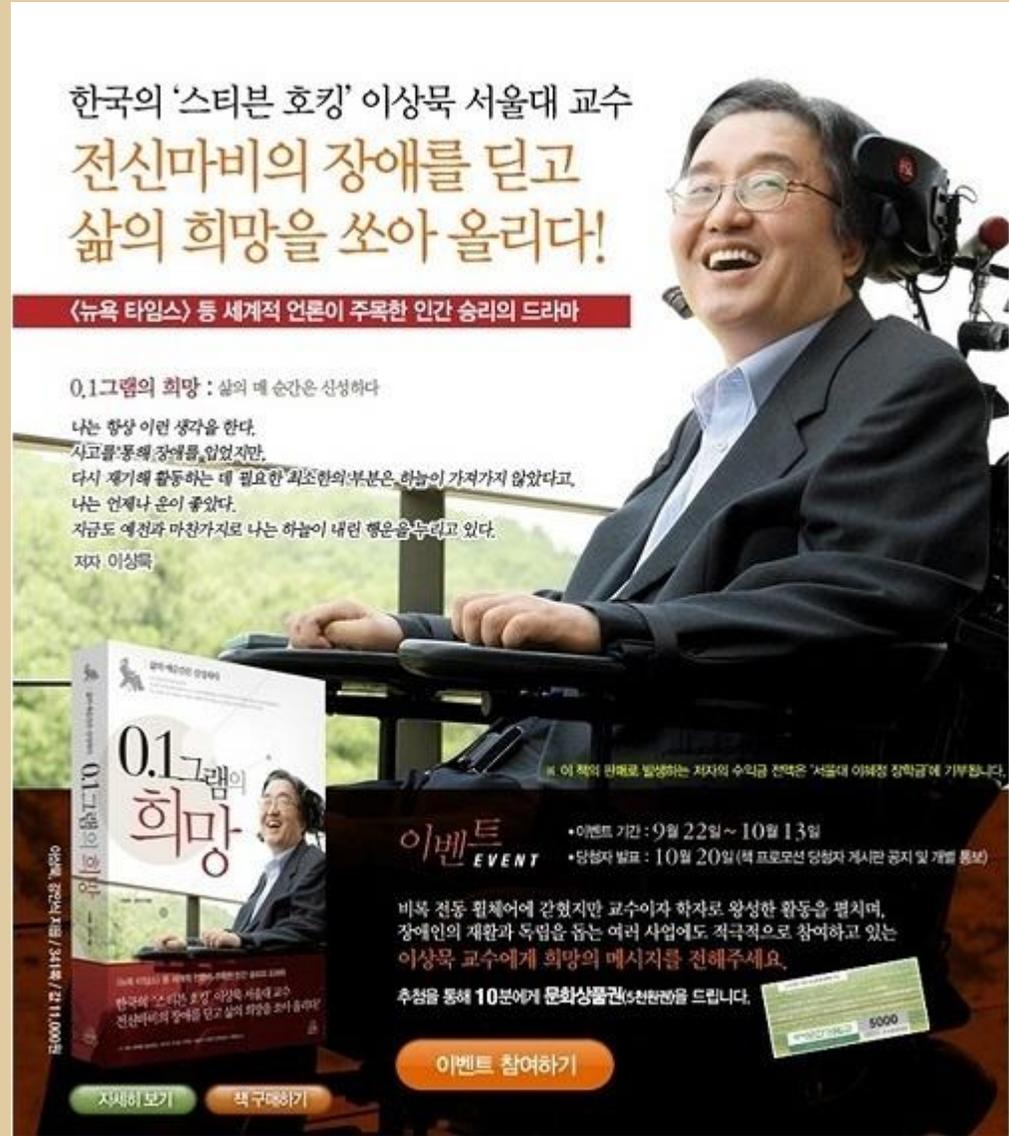
\*2006. 7.2 미국 지질조사 중 포드 밴  
전복사고(여제자 1명 사망)



**따뜻한  
기술의 선구자**

얼굴 외에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이지만, 일반인도 쉽지 않은 일을 이룩하고 있는 이상묵 교수. 장애인도 노력만 하면 일반인과 같이 일하고 먹고 쉬고 즐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연구사업에 임하고 있는 그는 과학자로서의 사명을 다 하기 위해서 지금도 고군분투중이다.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이상묵 교수



한국의 '스티븐 호킹' 이상묵 서울대 교수  
전신마비의 장애를 딛고  
삶의 희망을 쏘아 올린다!

〈뉴욕 타임스〉 등 세계적 언론이 주목한 인간 승리의 드라마

0.1그램의 희망 : 삶의 매 순간은 신성하다  
나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한다.  
사고를 통해 장애를 입었지만,  
다시 재기에 활동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은 하늘이 가져가지 않았다고  
나는 언제나 운이 좋았다.  
지금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나는 하늘이 내린 행운을 누리고 있다.  
저자 이상묵

이 책의 판매로 발생하는 저자의 수익금 전액은 '서울대 이해성 장학금'에 기부됩니다.

**이벤트 EVENT**

- 이벤트 기간 : 9월 22일 ~ 10월 13일
- 당첨자 발표 : 10월 20일 (책 프로모션 당첨자 게시판 공지 및 개별 통보)

비록 전동 휠체어에 갇혔지만 교수이자 학자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장애인의 재화와 독립을 돕는 여러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상묵 교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문화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하기

재제하기    책 구매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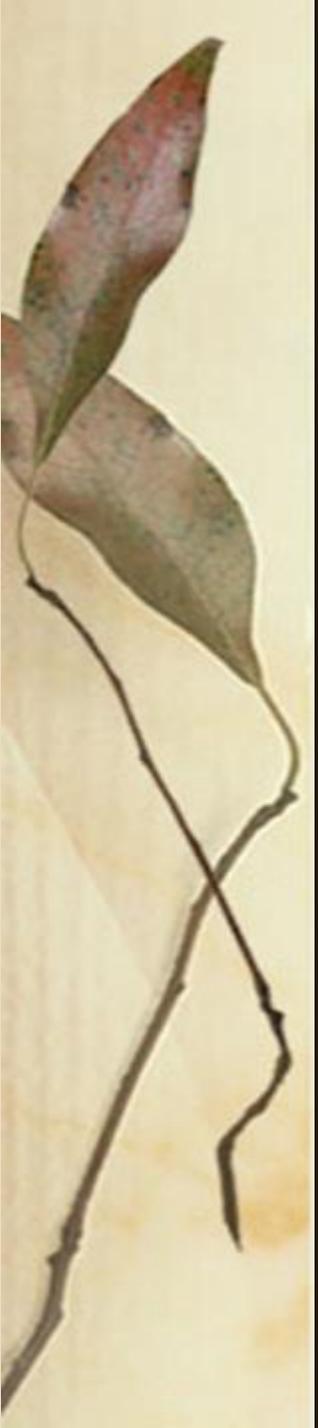
**존스홉킨스병원**

**이승복 박사**

**現) 하버드대  
프로젝트 연구 중**

- 1983년 7월 고교시절 체조 연습 중 사고
- 하버드대 글로벌의학연구소 재직  
(前 존스 홉킨스 병원 재활의학과 전임의)





# 강원래 & 나눔 운동

\* 2000.11.9 불법 U턴 차량에 모터 사이클 사고



## 닉 부이치치 & 케냐소년 에스라



- 1982. 12. 4. 몸통 장애인으로 출생(목사, 동기부여 강연가)



- 케냐 어린 소년 에스라의 후견인 자처

# Sesame Street 수석 작가와 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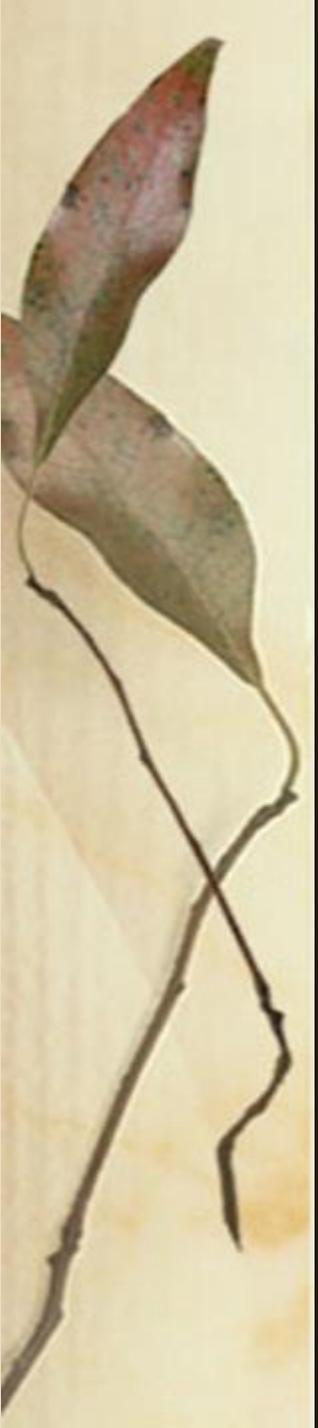
장애아이를 낳는다는 것



Emily Perl Kingsley, 1987



Jason Kingsley



**이분들의 공통점은?**

# 충격(Shock!)



# 이태리 로마로의 여행계획



# Welcome to Holland !



# Welcome To Holland !

아이를 임신(10개월)한다고 하는 것은 이태리 여행계획(평균 1년 전)을 세우는 것과 같다. 여행가이드북을 사서 준비를 시작한다. 교통편, 숙소, 먹거리, 관광, 쇼핑 등.

10개월 어간에 이태리 로마행 비행기에 탑승한다. 열 서너 시간 호기심을 안고 비행 끝에 이태리 로마 공항에 착륙을 한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비행기는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네덜란드 공항에 착륙한 것이다. **“Oh!, My God !”**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장애 아이를

출산한 것이다. 대부분의 부모에게는 **충격** >> **부정** >> **만성적 슬픔** >> **Shopp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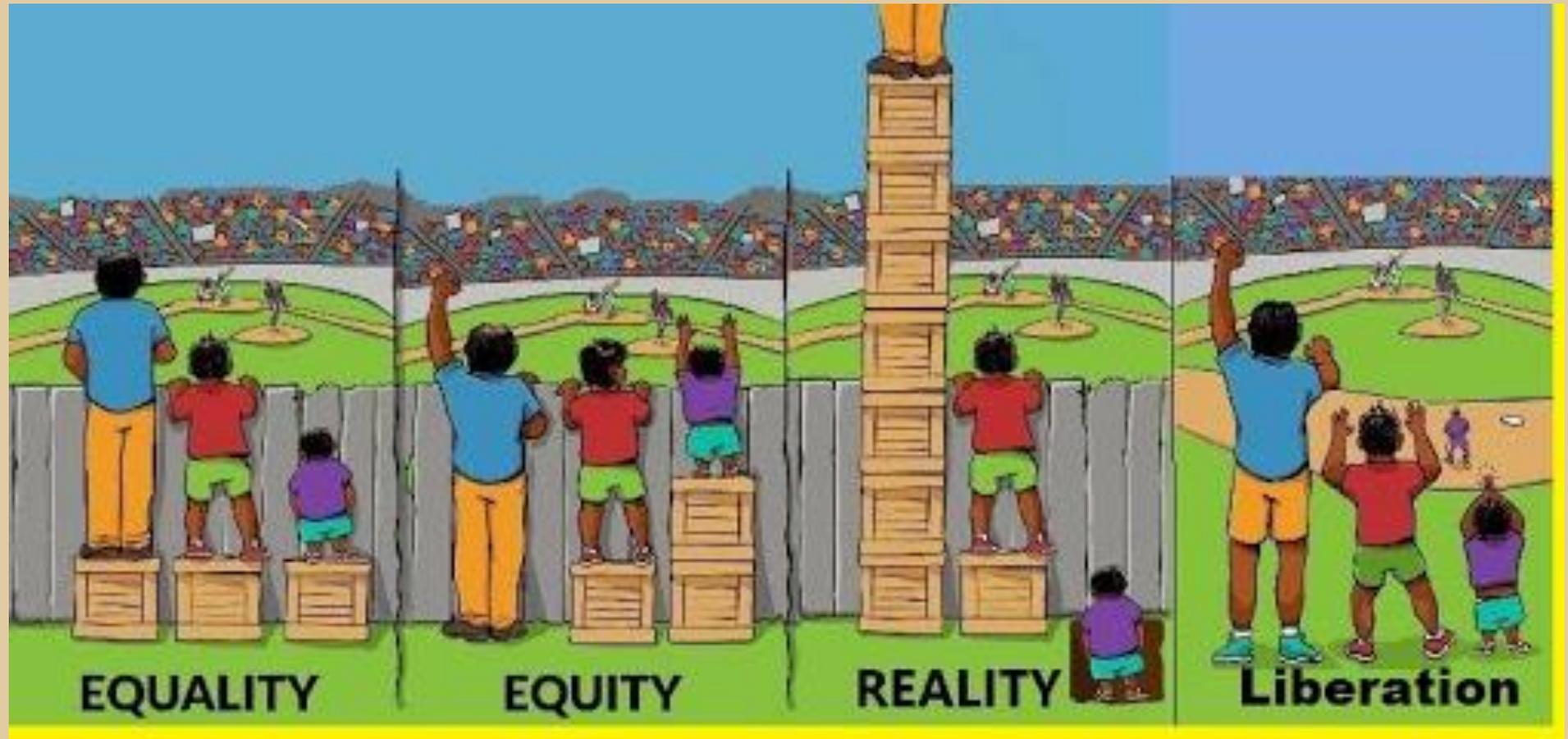
**Behavior** >> **Bargain** (심리적 흥정) >> **수용**의 과정이 뒤죽박죽 반복이 된다. 짧게는 2~3년, 길게는 20~30년 이러한 과정이다. 그럴수록 당사자의 교육기회는 사라지고, 부모는 망가지고, 가정은 해체된다.

네덜란드를 봐야 한다. 언제까지 이탈리아 타령만 할까? 그러자 튜립이, 풍차가, 램브란트까지도 눈에 들어 온다. 네덜란드 아이(장애아동)는 이태리 아이보다 느리지만 순진하고 착하다...

**그들은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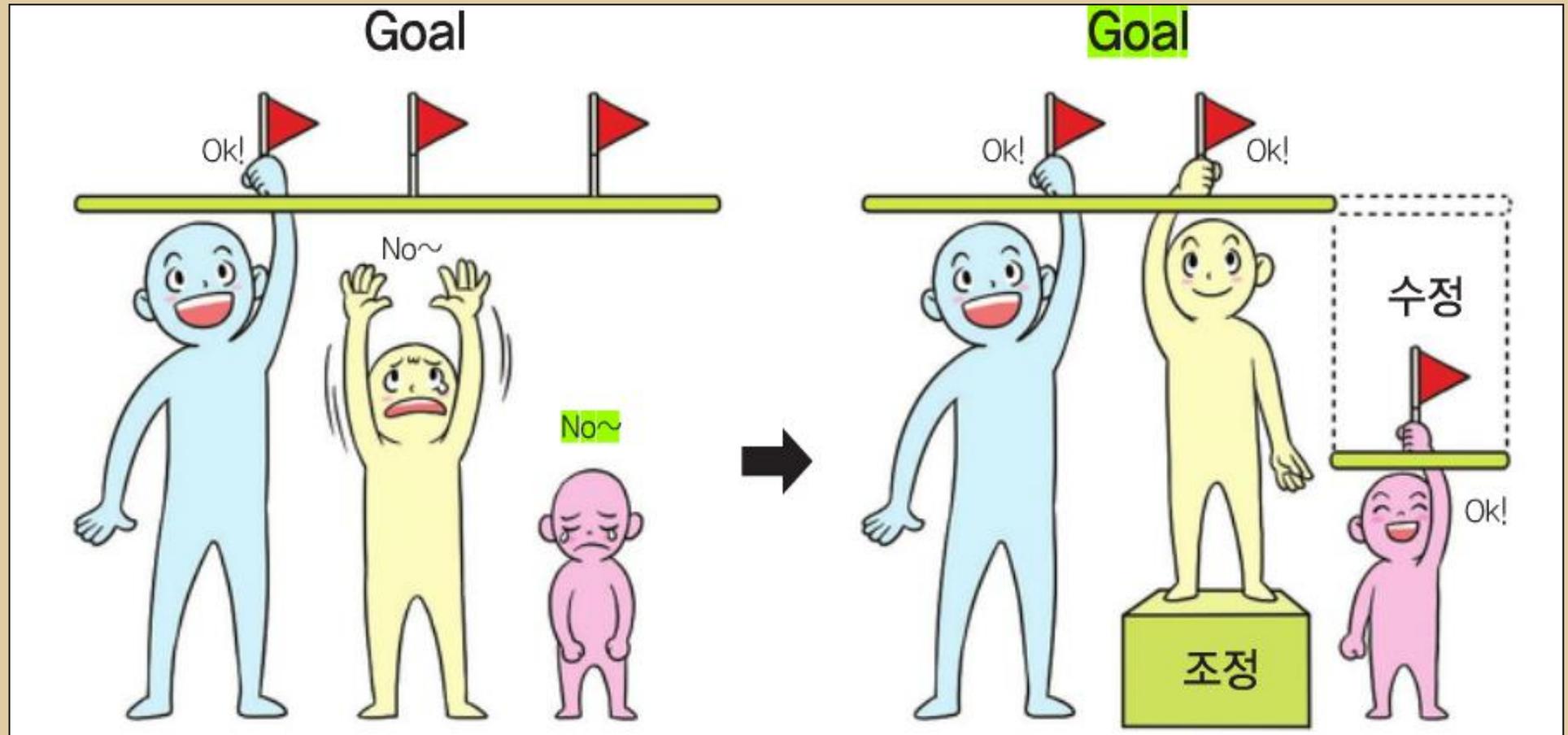


# 평등(平等), 공평(公平), 해방(解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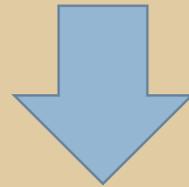
# 교육과정 조정과 수정의 개념

(Curriculum Adaptation & Mod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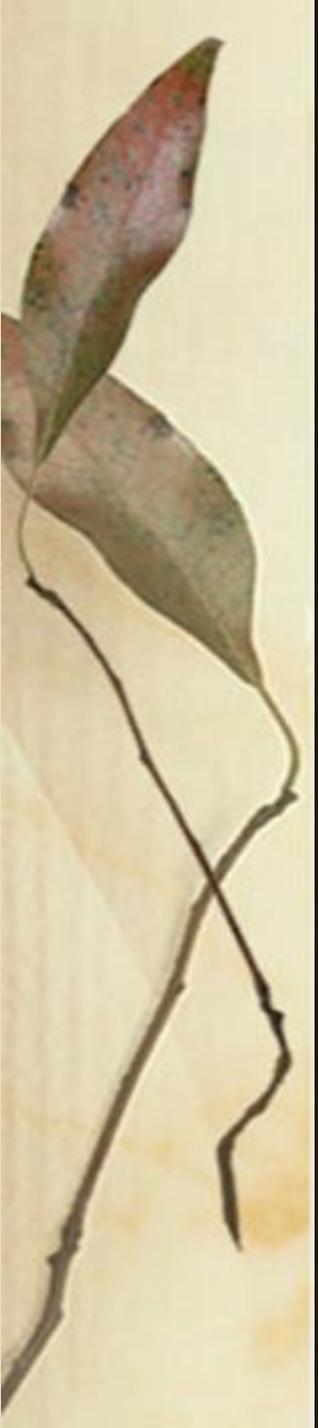


# 희망과 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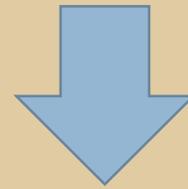
**OPPORTUNITY IS NOW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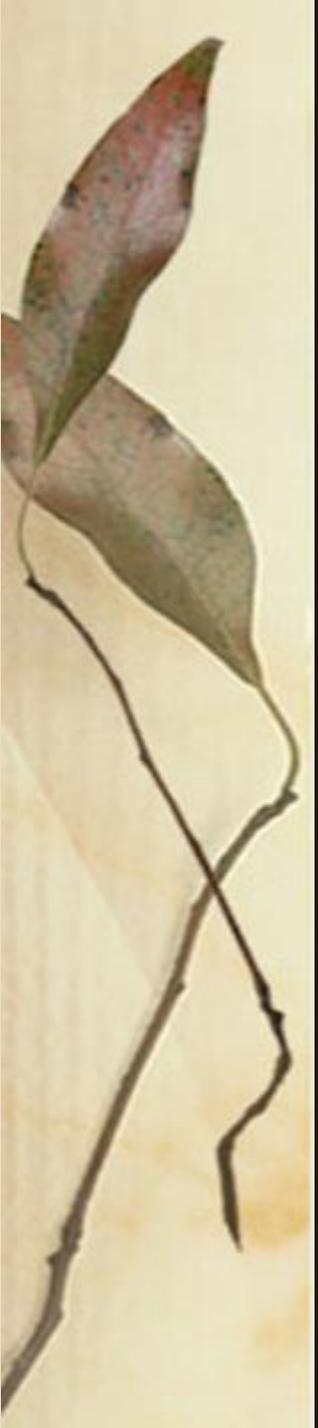
**OPPORTUNITY IS NOW HERE**



**Impossible**



**I\*mpossible**



봄이 제일 먼저 오는 곳은 사람들이 가꾸는  
꽃밭이 아니라 바람부는 들판입니다.  
봄은 들판의 이름없는 잡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석지  

You are still you, and I love you!

<크리스토퍼 리브>



<데이나 리브>



크리스토퍼 리브 재단(줄기세포 척추장애치료법 개발)  
\$6,500만 이상 모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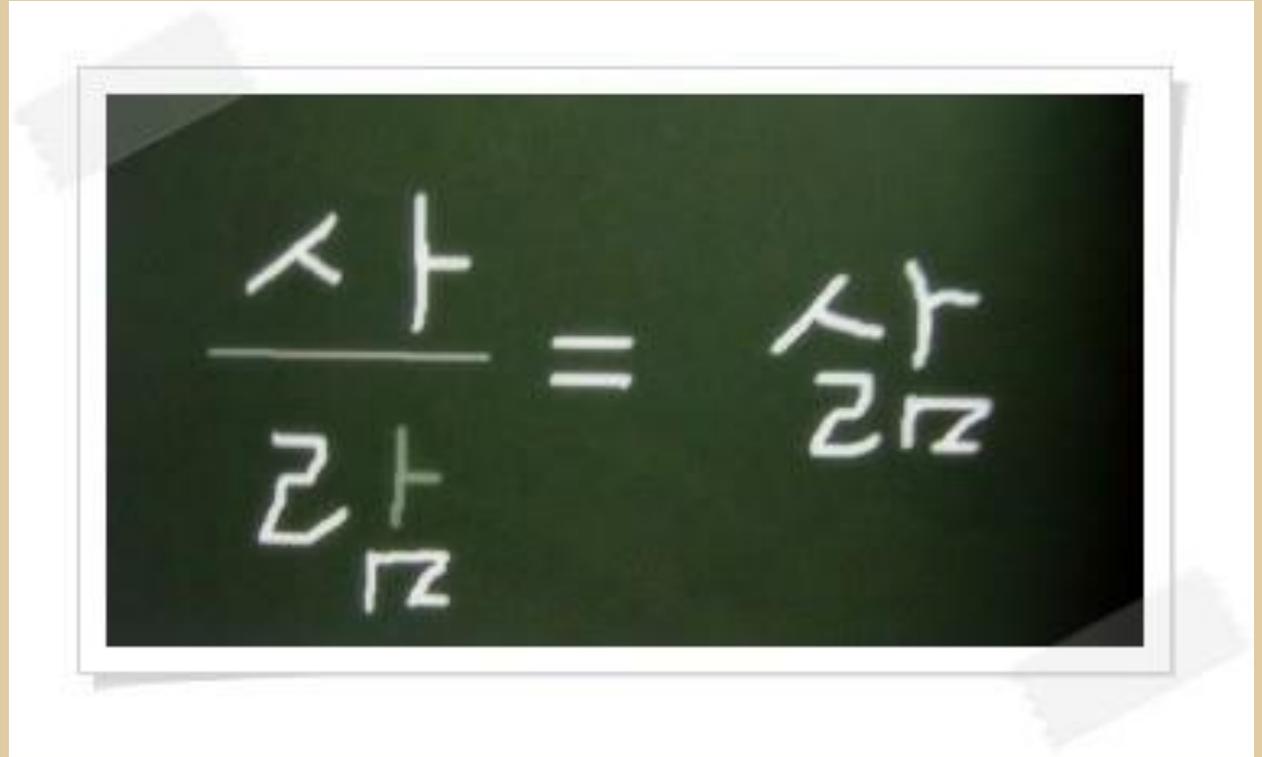
# 새롬의 추구

익숙하는 거리의  
구본형 지음  
거리의  
로

# 변했는지 어떻게 아는가?



故 신영복교수



# 점점 복잡해 지는 세상

장애아  
가정

혼혈인  
가정

저소득  
가정

새터민  
가정

보통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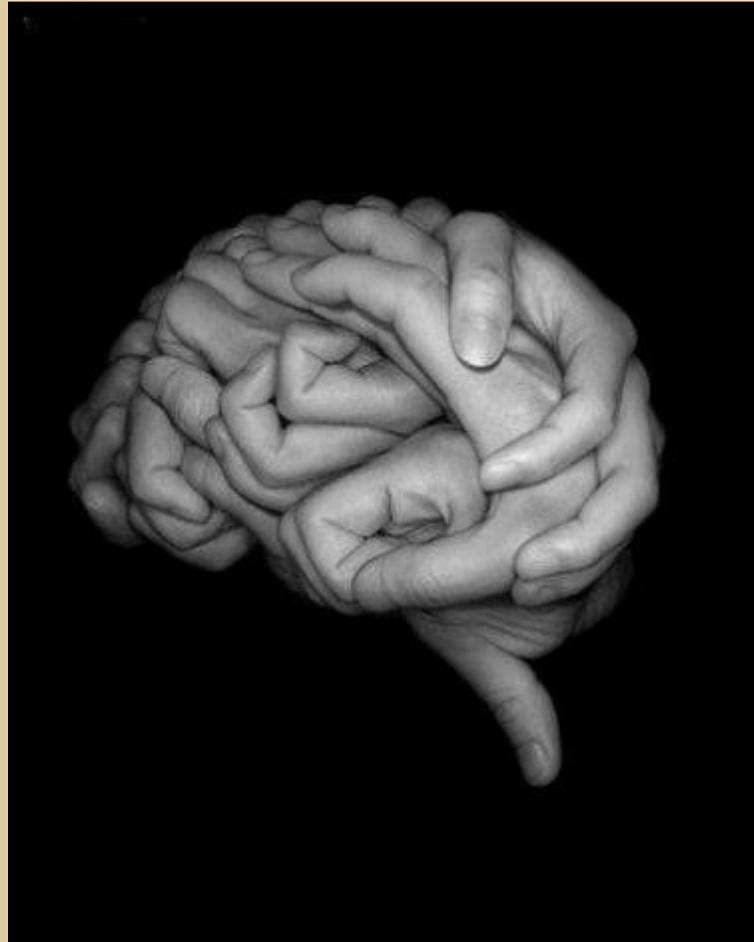
폭력  
가정



# 가장 아름다운 자세 (傾聽)



# 가장 아름다운 자세 (包容)



# 관세음: 觀世音



**빨리=혼자; 멀리=같이**



# 관계(關係)적 존재



# 관계의 파괴=분노



# WHY?



## 인간에 대한 가장 넓은 이해

“인간의 다른 이름은 관계다.”

“정신은 내 속에 있지 않고 나와 너 사이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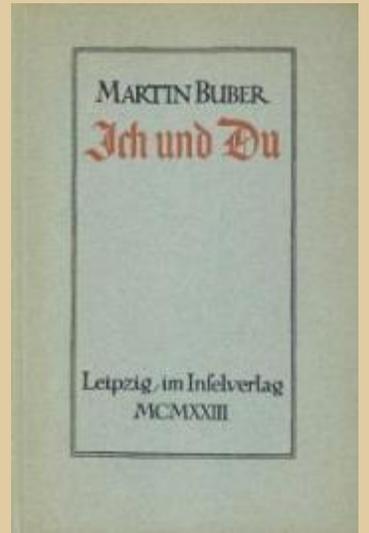
“세계의 뿌리말은 외말이 아니라 짝말이다.

나, 너, 그것이 아니라 나와너, 나와그것이다.”

마르틴 부버의 말이다.

알지만 자주 잊는다.

우정길은 마르틴 부버(사진)의 '대화 교육학'의 구상이 고스란히 담긴 <교육 강연집>을 독일어 직역판으로 내놓았다. 현대 교육 철학의 고전을 보다 정확하고 섬세하게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권말 부록은 부버 전반을 이해하는 길잡이가 된다.



# 괴물의 탄생(1)



## 괴물의 탄생(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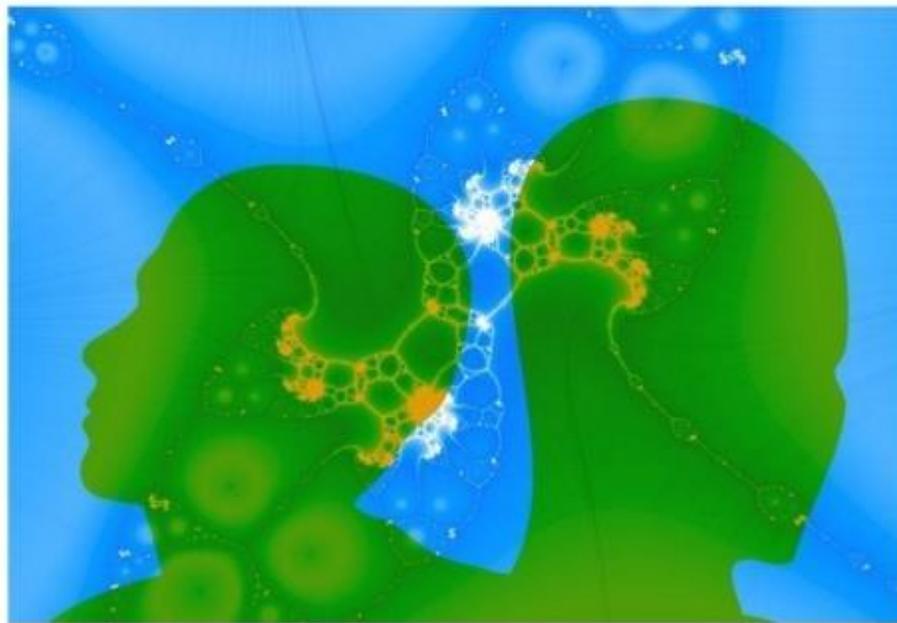
5. 다음 도형이 사각형이 아닌 이유를 써 보시오.



(원래는 사각형인데 찢어져서)

**급기야!**

## 인성교육진흥법



**내용이 아닌 맥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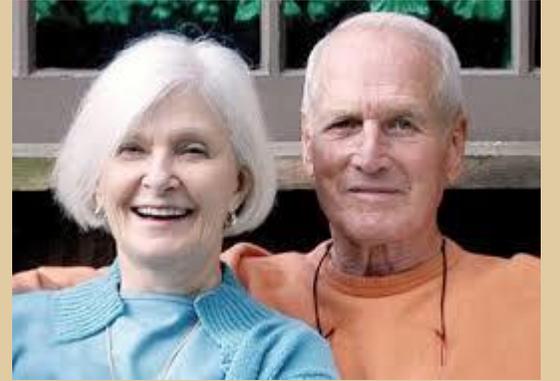
# 50년간의 동행



폴 뉴먼과 조앤 우드워드

- \* 1978년 아들 스콧 뉴먼의 사망
- \* 스콧 뉴먼센터 설립(중독자 치료를 위한 기부 사업 재단)
- \* 1982 뉴먼즈 오운(유기농 식품회사)을 설립하여 수익금 전액 기부
- \* 1988 홀 인더 월 갱 캠프(세계 난치병 어린이 치료) - 10만명 이상의 어린이 참여
- \* 1999년 사회공헌 장려위원회 설립 (CECP)
- \* 2008년 9월 26일 사망(당시 83세) 총 기부액 2억 8천만 달러(약 3천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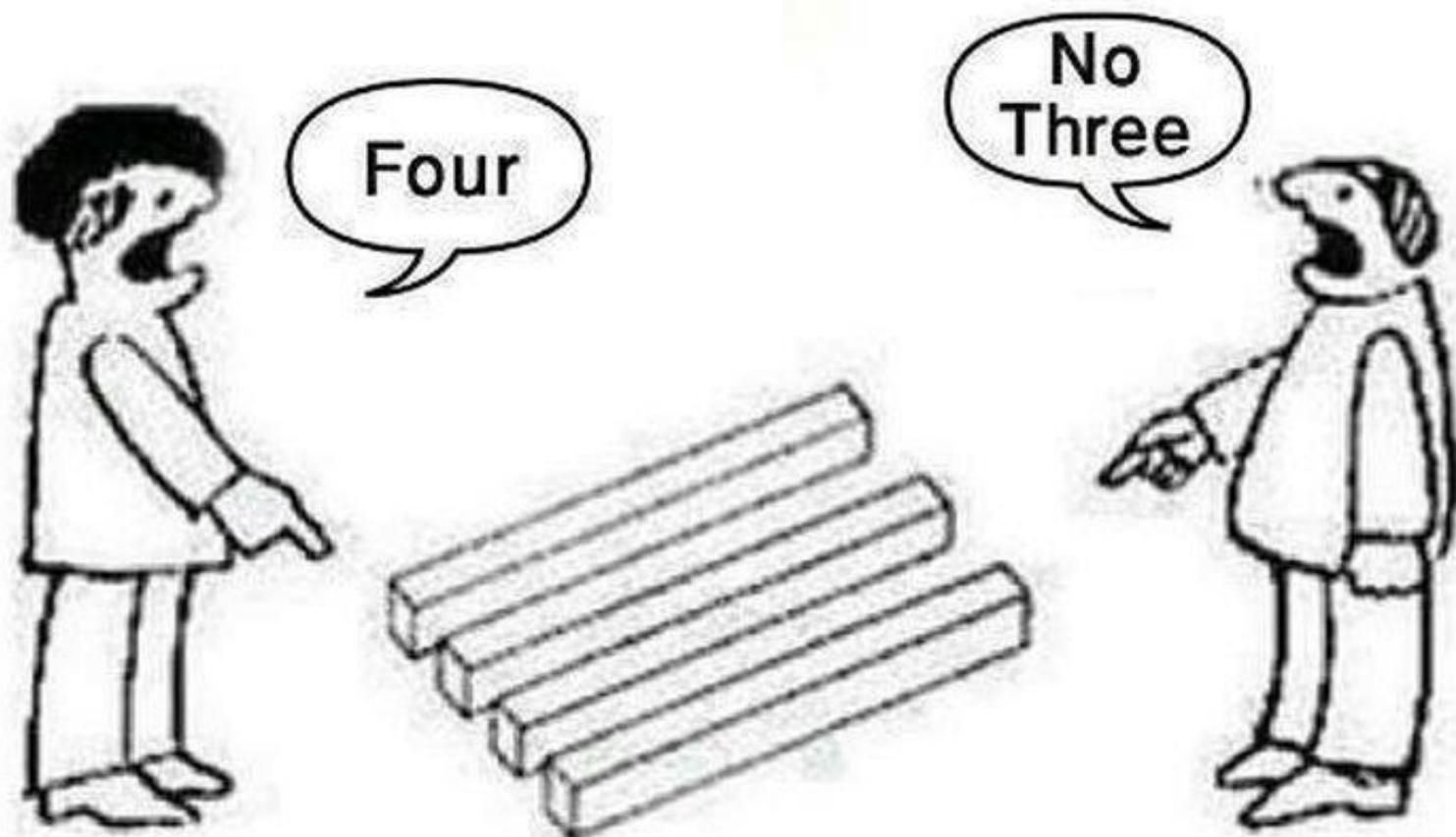
## 관계의 발전=相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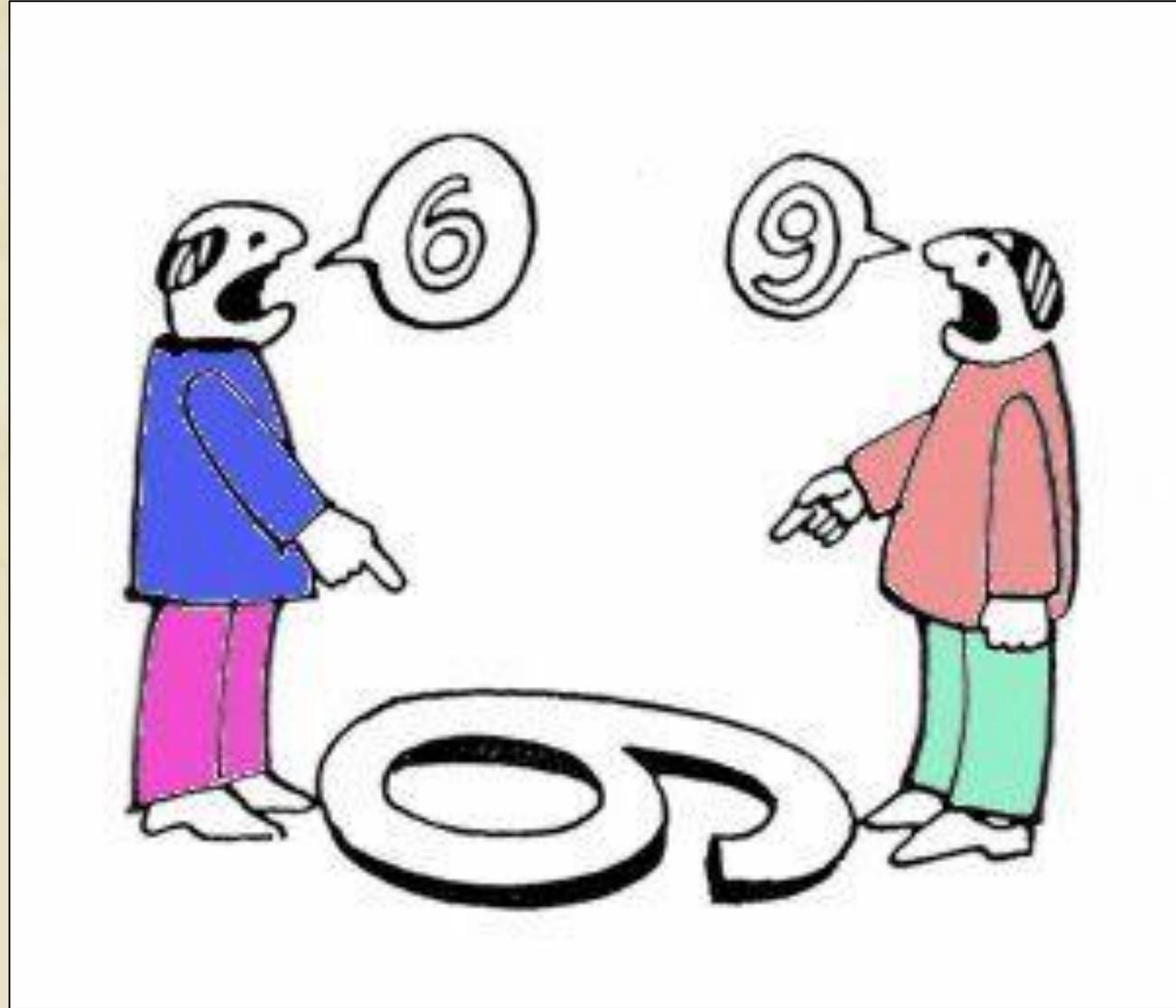


“행운을 타고난 사람들(건강한 사람)은  
불운한 사람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면서 부터 점점 더  
나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It is really confusing!!!**





**나를 조정하자!**

**?**

**야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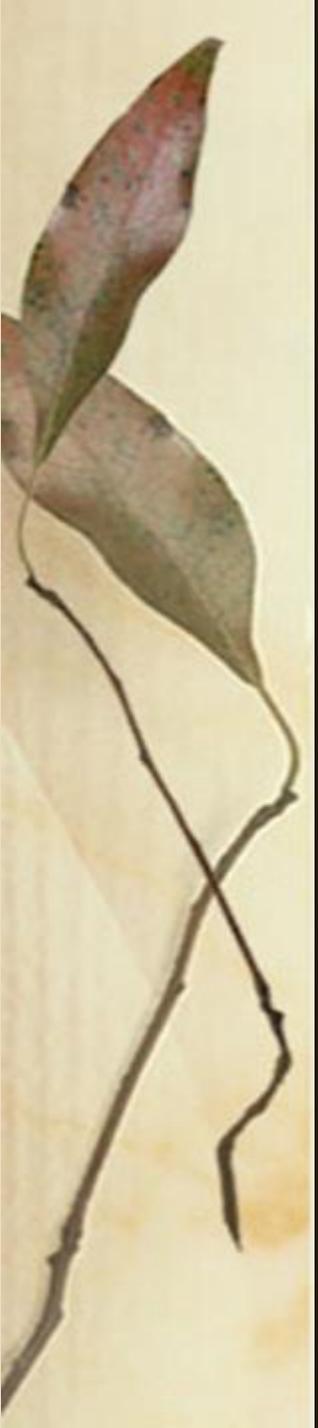
출처: lifestylepets



**멍멍!**

제2외국어 공부 늦지 않았다! **NOW**





교사의 제 2 외국어=**불어**

관찰아 **불어**

됐어 **불어**

견뎌 **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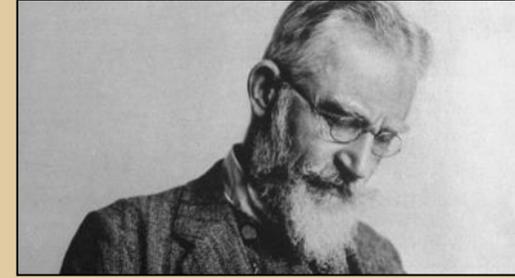
웃어넘겨 **불어**

변화는 끊임없는 선택의 과정

Birth [Choice] Dea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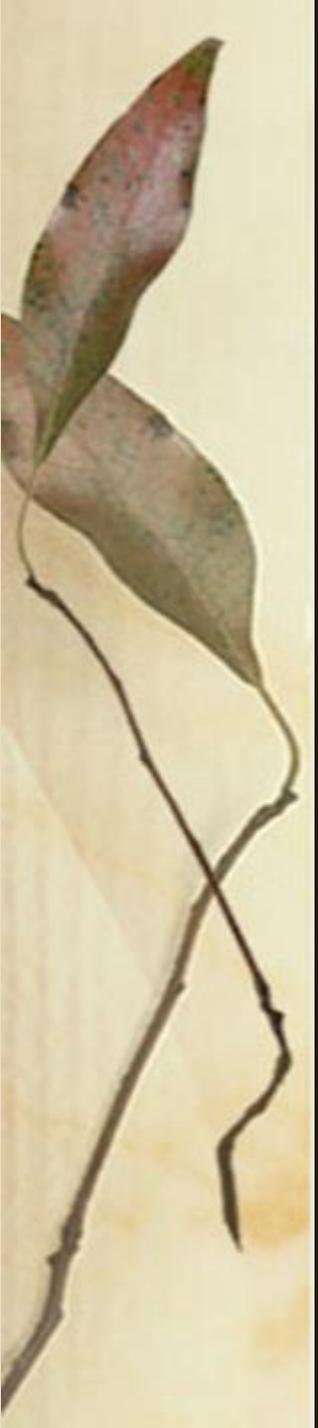
# Dilemma!



유람선이 난파되어 승객 2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死亡했다. 2명은 세계적인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와 다운증후군 어린 소녀이다.  
그런데 유일한 고무 구명정은 1인용이다.  
당신이라면 그 구명정에 누구를 태우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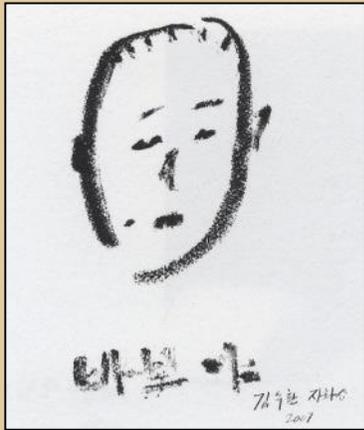
**출처: 김수환추기경 잠언집  
바보가 바보들에게(1권) 중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자신에 대한 관리**

**live > evil (악행)**

**lived > devil (악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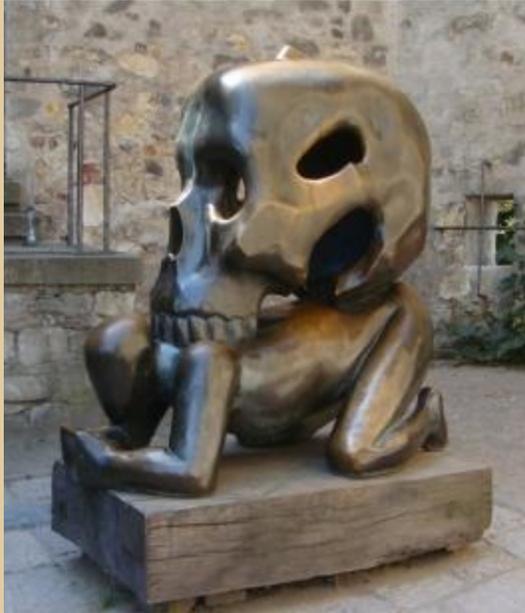
당신이 태어났을 땐  
당신만이 울었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엔  
당신 혼자 미소짓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울도록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김수환 추기경-

호흡(呼+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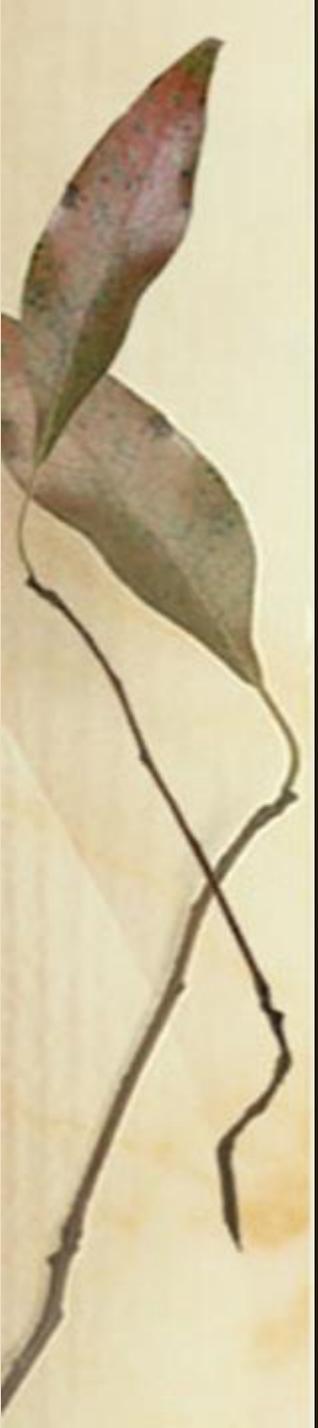
Memento mori



死

(一)+(夕)+(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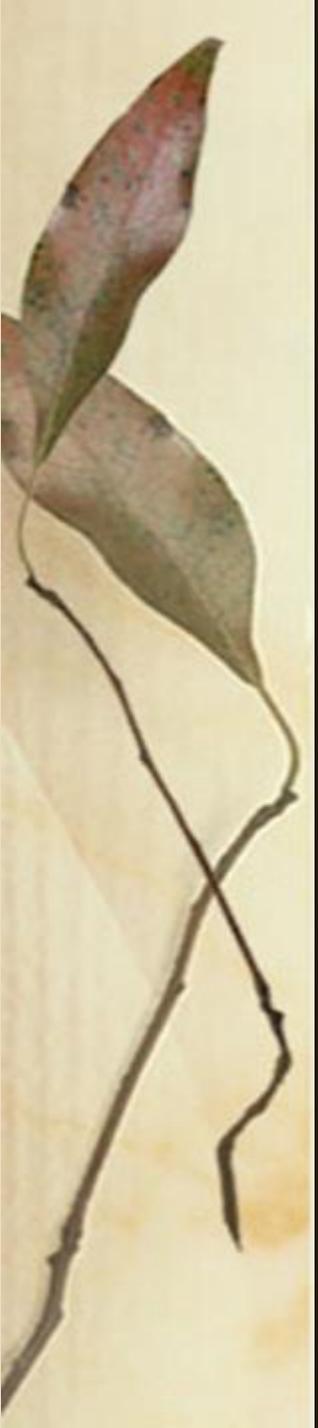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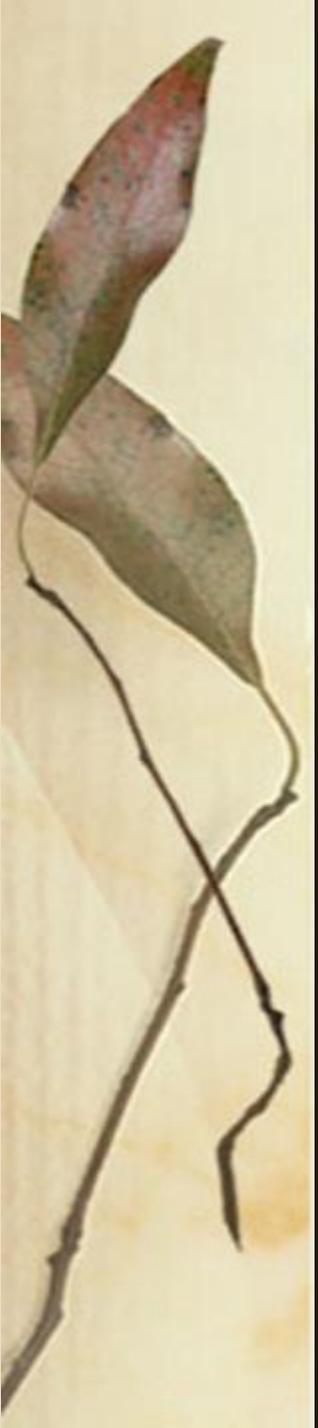
# 오늘과 내일!

낙엽은 나쁜 보고  
기쁜 나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쓴다.

Me today  
You tomorrow.

조병화의 낙엽 중에서





오늘과 내일!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스웨덴의 한 공동묘지 호소의 글



**오늘과 내일!**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

-대구 남산동 가톨릭 성직자 묘지 라틴어 현판-

**까가네!**

**스페인 산타루치아 마켓의 명품**



**찰리 채플린, 엘비스 프레슬리, 도라에몽, 호머 심슨, 교황님**

# Thanatology (죽음학)

살아 예 대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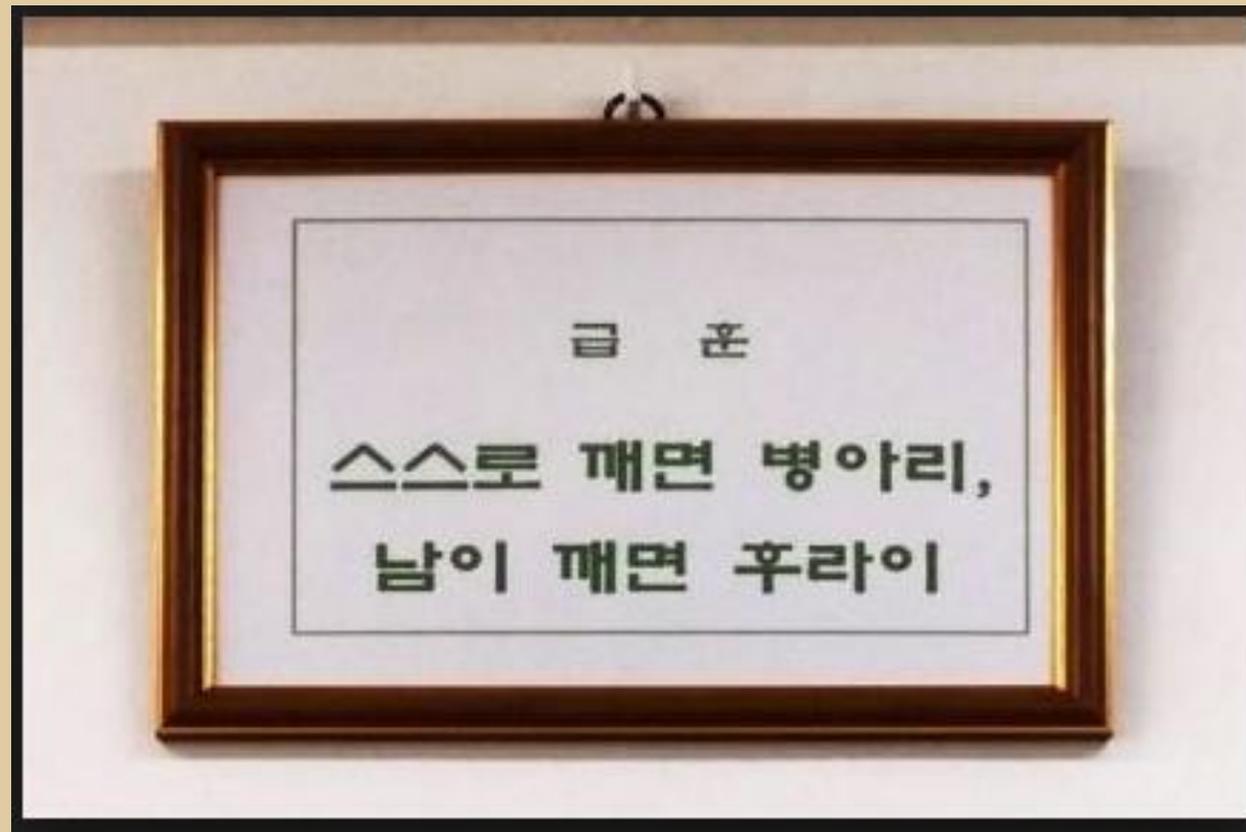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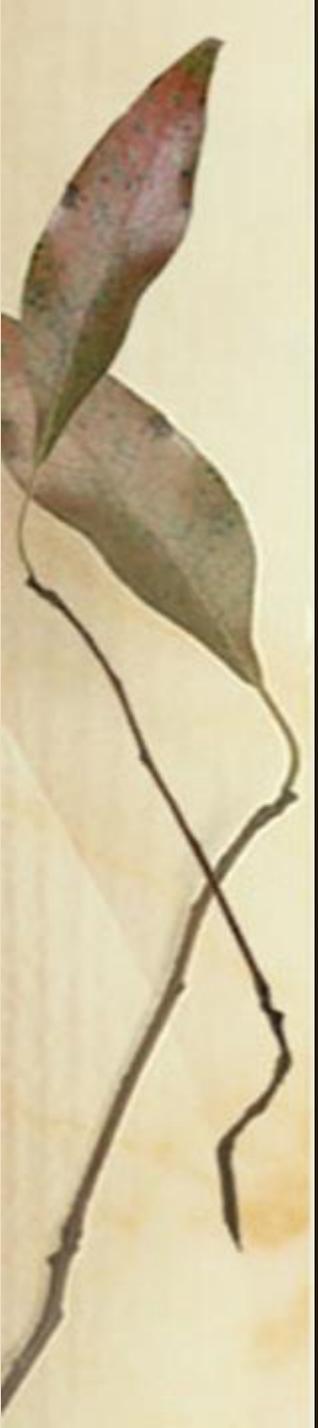
죽기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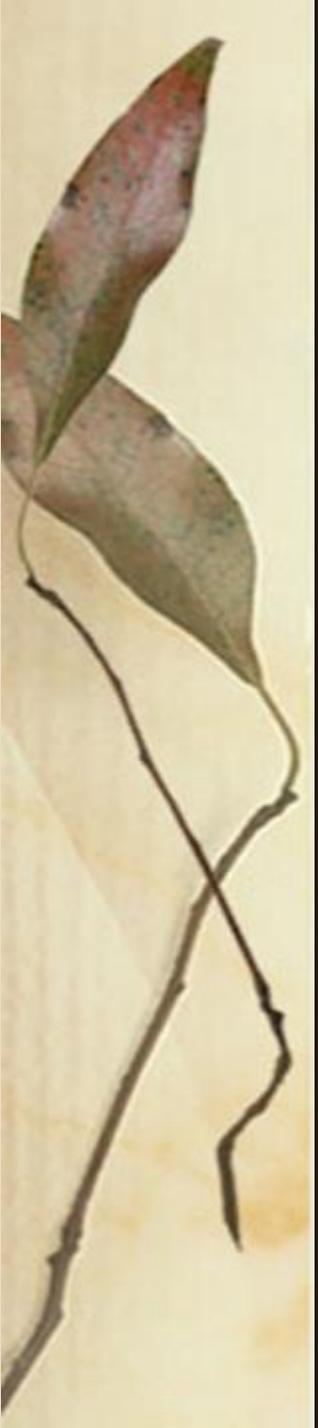




**자격 가진 자의 책무**

**OWN(가지다)**

**OWE(빚지다)**



## 중동의 성자의 조정

아버지께서 3형제에게 유언을 남기셨다. 나의 전 재산 17마리의 낙타를 큰 아들은  $1/2$ 을, 둘째 아들은  $1/3$ 을, 막내 아들은  $1/9$ 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거라. 단 낙타를 희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틀림**에서 **다름**으로의 **인식 전환**



모두  
살색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피부색만 다른 소중한 사람입니다  
돌아가서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릴 귀한 손님입니다

# 전문가=호머 쿵푸스



전문학습  
공동체  
功夫=工夫



# 親

木 + 立 + 見 : 기다리고 인내하는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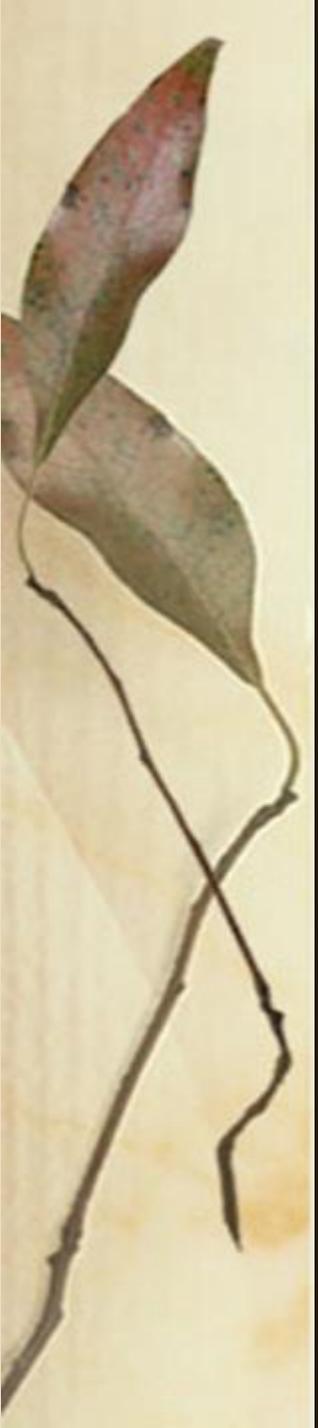
**82세의 노인이 52세 된 아들과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 그 때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의  
나무에 날아와 앉았다. 노인이  
아들에게 물었다. "저게 뭐냐?"  
아들은 다정하게 말했다.  
"까마귀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그런데 조금 후 다시 물었다. "저게 뭐냐?" 아들은 다시, "까마귀라니까요. "노인은 조금 뒤 또 물었다. 세 번째였다. "저게 뭐냐?" 아들은 짜증이 났다. "글쎄 까마귀라고요. "아들의 음성엔 아버지가 느낄 만큼 분명하게 짜증이 섞여있었다.



**그런데 조금 뒤 아버지는 다시 물었다. 네 번째였다. "저게 뭐냐?" 아들은 그만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다. "까마귀, 까마귀라고요. 그 말도 이해가 안돼요? 왜 자꾸만 같은 질문을 반복하세요?" "조금 뒤였다.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 때가 묻고 찢어진 일기장을 들고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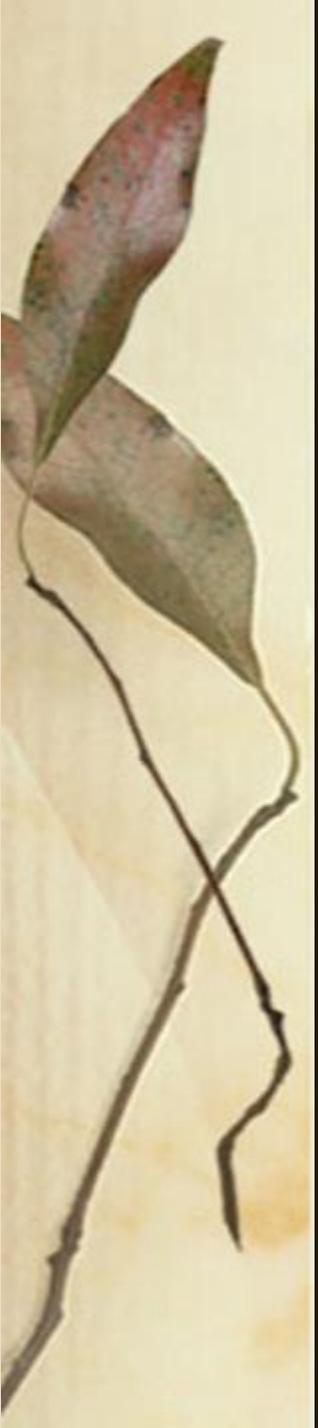
**그 일기장을 펴서 아들에게 주며  
읽어보라고 말했다. 아들은  
일기장을 읽었다. 거기엔 자기가  
세 살짜리 애기였을 때의 이야기가  
있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주었다.  
까마귀라고.**



**똑같은 대답을 23번을 하면서도  
즐거웠다. 아들이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 감사했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즐거웠다.**

# 단절에서 소통으로

생후 20일만에 버려진 아이 6번 罷養



우즈벡 소년 Kirill



4년의 기다림 끝에 입양한  
Doug Facey & Lesley Facey

단절에서 소통으로



**참고 참여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